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골 4:3)

“요셉 형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26년간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살아 왔는데 최근 극심한 좌절감과 회의감, 그리고 무기력에 빠져 있습니다.” 한 뜻으로 주님의 길을 함께 걷고 있는 현지인 사역자 아구스 형제의 다급한 기도부탁을 받고, 형제와 그의 가족을 위해 기도한 후 연락 하였습니다. “아구스 형제, 형제의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하며 나 역시 선교지에서 20년 삶의 여정을 지나고 있는 이 시간 같은 힘들음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 동일한 기도제목으로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서 두 가정에 은혜를 주시도록, 주님의 뜻이라면 계속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며칠 뒤 휴가를 내고 침을 가지고 있는 아구스 형제를 만나 주변의 어떠한 사람 없이 오롯이 두 형제가 식사하며 그동안 삶의 여정을 나누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랜 시간 무슬림을 향한 복음증거자로 살아가고 있는 사역자들과 그 가족들이 더욱 힘을 내고 성령 충만함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 소식지를 쓰고 있는 동안 아구스 형제로부터 다음의 기도요청을 받았습니다. 함께 기도 해 주세요..

Selamat pagi saudara pak Yusuf. Semoga bapak dan keluarga baik-baik.

안녕하세요, 요셉 형제. 형제와 가족 모두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부터 금요일까지 S 지역에서 사역자 지망생들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인도네시아 여러 지역으로 파송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8일부터 30일까지는 D와 M 지역에서 사역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 제가 항상 열정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도록,
-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 2주간 집을 비우는데 집에 있는 아내의 안전과 강건함 그리고 자녀를 잘 돌 볼 수 있도록,

요셉 형제를 위해 기도할 제목도 알려주세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형제를 축복합니다.



이에임 선교사는 언니의 위급 소식을 듣고 급하게 한국으로 입국하였습니다. 인천공항 도착하여 바로 병원으로 가서 언니의 마지막을 언니의 딸과 함께 지킬 수 있었습니다. 1시간 남짓 언니와 함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언니의 모습을 바라보았기에 참 감사하였습니다. 천국에서 언니를 다시 만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예정되어있던 유치원에서의 미술교육 사역을 당분간 할 수 없어 급하게 양해를 구했고 공항으로 이동도중 유치원 선생님들로부터 다음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Ibu Amy yang terkasiñ,

사랑하는 예임 선생님께,

M 유치원과 우리 아이들을 위해 쏟아주신 선생님의 사랑과 열정, 그리고 소중한 시간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은 저희에게 정말 큰 축복이었습니다.

선생님의 언니께서 심각한 암 투병 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저희 모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힘든 시기에 유치원 가족 모두가 선생님과 언니, 그리고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생님과 가족에게 힘과 치유, 마음의 평안, 그리고 건강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실 것을 믿습니다.

한국으로 가시는 길, 안전하게 다녀오세요. 순조로운 여정이 되길 바라며, 가족분들과의 만남도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선생님의 건강도 잘 챙기시고요.

계속해서 선생님과 가족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유치원에서 다시 뵈겠습니다!

Dengan kasiñ dan doa, Keluarga Besar TK M

사랑과 기도를 담아, M 유치원 가족 일동





2026년 가을 기도제목

1. 주님의 말씀에 늘 귀 기울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삶을 살아가며, 건강을 잘 유지하도록.

2. (이요셉)

- 화학공장 근로자들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며, 특히 팀원인 R, Y, A와의 관계가 한발짝 더 들어 가며, 새로운 프로젝트의 S 및 다른 팀원들과도 관계를 만들어 가도록.

- 지방의 선교사 자녀들의 다양한 필요들을 보면서 지속적으로 돕고, 그 가정들이 주님의 사역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도록.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온라인 수학 수업을 통해 아이들에게 도움이 시간이 되고 실력을 키워 가도록.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선교사 자녀들이 이 시간을 잘 극복하고 성장해 나가도록

- 현지인 사역자 자녀들의 교육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특히, 필요한 장학금 기금이 만들어 지도록.

- 아구스 형제 가족이 사역자로서의 건강함을 잘 간직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함께 동행하는 이 시간이 서로에게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3. (이예임)

- 언니의 장례예배를 잘 마칠 수 있음에 감사. 남은 가족들을 위로 하시고 특히 조카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 말씀과 기도 중심의 삶을 통해 영적으로 깨어 있도록.

- 매일 말씀을 주제로 그리는 그림을 통해 영적, 감정적 풍요로움의 시간이 되도록.

- 가을에 한국에서 갖게 되는 세브란스병원에서의 여러 검진과 의료진의 후속조치가 잘 진행되도록

- 미술교육사역이 당분간 멈추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유치원의 아이들과 선생님들 감성의 풍성함이 잘 유지되도록. 귀임 후에도 미술교육사역이 잘 이어져서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력과 하나님의 창조질서가 전달되도록.

4. (예진/원석)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가정을 만들어 가며, 주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두는 가정이 되도록.

(상화) 믿음 안에서 건강한 청년으로 성장하며, 육체적 회복과 심리적, 영적 안정감을 가지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요셉, 이예임, 예진(원석), 상화 가정